

나주시, 2025년도 으뜸 신규시책 선정 역점 추진

명소 대여 결혼식 지원 등 4건 공무원 챗GPT 직무 활용교육 청년 1인 1종 산업 자격 취득 “체감도 높은 신규 시책 발굴”

나주시가 새롭게 발굴한 시책 중 정책 공감도가 높은 시책을 선정해 역점 추진한다.

나주시는 지난 5일 2025년도 신규시책 보고회에서 공유한 총 90건의 시책 중 총 4건을 최우수·우수·장려 시책으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최우수 등 시책은 공무원과 언론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했다.

최우수 시책(부서)은 ‘나주시 공무원 챗GPT 직무 활용 교육 추진’(총무과)이 차지했다.

우수시책은 ‘소박하지만 알찬 공공 작은결혼식’(가족아동과)이, ‘나주의 맛 우

리가 책임진다! 나슬랭평가단 납시오!(보건행정과)’와 ‘청년 1인 1종 지역특화 산업 자격취득·고용연계’(일자리경제과) 사업이 장려 시책으로 각각 선정됐다.

‘챗GPT 직무 활용 교육’은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하는 인공지능(AI) 기술 분야인 챗GPT 활용 역량 강화에 따른 업무 효율성 향상에 중점을 둔 사업이다.

시는 팀장급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해 챗GPT 기초 활용 및 보고서 작성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작은 결혼식’은 나주에 실거주하는 예비부부에 지역 명소와 공공시설 등을 예식 용도로 무료로 대여해주고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결혼식비용이 부담되는 예비부부를 위해 예식장과 더불어 사진, 부케, 청첩장, 신랑·신부 예복, 메이크, 사회자, 도우미 등 예식 패키지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나주시가 2025년도 신규 시책 중 최우수·우수·장려 시책을 선정한 가운데 지난 9월 5일 2025년도 신규시책 보고회가 열렸다. 나주시 제공.

지역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한 시책인 ‘1인 1종 자격 취득·고용 연계 사업도 눈길을 끈다.

시는 에너지신산업, IT통신업 등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통해 창출한 양질의 일자리를 지역 청년들의 고용으로 연계, 청

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기업 구인난 해소를 도모한다.

청년들이 특화산업 분야 자격증 1종 이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화산업체와 우선 고용 협약 등을 체결해 자격과 역량을 갖춘 청년 고용을 장려할 방침

이다. 마지막으로 ‘나슬랭 평가단’은 음식문화 개선을 통한 식문화 관광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나슬랭은 ‘나주’와 ‘미슬랭’(미쉐린에서 매년 발간하는 식당 및 여행가이드)의 합성어다.

평가단은 관광객(대중)의 입장에서 음식점의 위생, 맛, 서비스 등을 평가하고 결과를 토대로 우수 업체에 홍보 및 음식문화개선물품을 우선 지원한다.

시는 내년도 신규시책 시행을 위한 추진 계획 수립, 사업비 편성 등 지속적인 보완에 힘쓸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정책 효율성과 체감도가 높은 신규시책 발굴에 노력해준 소관 부서 직원들의 참신한 발상에 박수를 보낸다”며 “지속적인 선도 시책발굴을 통해 앞서는 으뜸 나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나주·김용의 기자

윤병태 나주시장, 공산 옥정마을서 좌담회

불편 사항 경청·소통의 일환

윤병태 나주시장이 공산면 옥정마을에서 찾아가는 마을좌담회를 가졌다.(사진)

마을좌담회는 윤 시장이 마을로 직접 찾아가 주민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고 마을 불편 사항을 경청, 개선하는 소통 행정의 일환으로 이번까지 14번째를 맞이했다.

물리적 거리가 멀거나 바쁜 생업 등으로 시청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생생히 꼼꼼하게 경청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됐다.

특히 이번 좌담회는 무더위가 한풀 꺾인 날씨 가운데 마을회관이 아닌 야외 우산각에서 열려 몸과 마음을 시원케 했다.

공산면 옥정마을은 수려한 풍경에 깨끗한 물이 흐르고 여기에 조선시대 명재상인 사암 박순 선생이 정자를 짓고 지내며 ‘옥정’이라는 명칭을 붙였다고 전해진다.

현재 58가구 주민 96명이 거주하고 있



으며 ‘형만하 아우 없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형제방죽이 있다.

좌담회엔 노성수 마을이장, 노성열 노인회장, 이인숙 부녀회장을 비롯해 주민 30여명이 참석해 ‘마을 진입로 옹벽 설치’, ‘마을 우산각 보수·철거’ 등을 요청했다.

윤병태 시장은 “주민 여러분의 환대와 허심탄회한 대화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건의해주신 말씀들은 소관 부서를 통해 신속히 검토해 추진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미처 말씀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이장님, 면장, 직원들을 통해 전달해주시면 최대한 수렴해 개선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주·김용의 기자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 기후 위기 관련 특강 진행

시민·학생 등 800여 명 참석 “기후위기 극복 열쇠는 에너지”

과학 커뮤니케이터인 ‘궤도’가 나주에서 기후 위기 관련 특강을 펼쳤다.

나주시는 25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KENTECH) 대강당에서 나주글로벌에너지포럼2024 사전 행사로 궤도를 초청해 시민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궤도는 비과학적 영역을 과학적으로 해석하거나 대중에게 친근한 소재로 과학이론을 쉽고 재미있게 풀이해주는 유튜브로 유명하다.

유튜브 채널뿐 아니라 라디오, TV 시사·예능 방송에 다수 출연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궤도는 ‘기후 위기, 인류는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세계 유일 에너지 분야 특화대학인 켄텍 학생들과 시민을 만났다. 대강당에는 시민과 학생 800여명이 객석을 꽉 메웠다. 윤병태 시장과 함께 궤도가 입장하자 객석에선 환호성이 터지며 에너지포럼 전야제 분위기를 한껏 달궜다.

궤도는 지구온난화, 온실가스, 온실효과 등이 불러온 기후 위기가 인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뤘다.

특히 지구 온도가 섭씨 1도에서 5도까



지난 25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대강당에서 나주글로벌에너지포럼2024 사전 행사로 ‘궤도’를 초청해 시민특강을 개최했다. 나주시 제공

지 상승하는 단계별 상황을 예측하며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일깨웠다.

1도가 상승하면 폭우와 가뭄, 빙하가 녹는 등 이상기후가 발생한다. 2도가 오르면 모기가 급증하면서 사망률이 늘고 농작물 재배 지역이 감소한다. 3도 이상일 경우 세계 인류는 식량난에 시달리고 침수 국가가 발생하며 자국민 생존을 위

해 국가 간 전쟁을 일으켜 인류가 멸망한다는 결론이다.

궤도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제 효과적인 방안, 신재생에너지, 탄소중립과 같은 과학 기술 발전상 등을 다뤘다.

실제 효과적인 방안은 ‘에너지’였다. 궤도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원자력, 수소자동차, 스마트 수소에너지, 핵융합 에너지 등 탄소중립 에너지 기술의 발전상에 대해 차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후 위기에 도전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과학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궤도는 “탄소중립, 결국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순간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그래서 나주에 켄텍이 있는 것”이라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전 세계 경제포럼인 다보스 포럼처럼 나주에서 처음 열리는 글로벌에너지포럼은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를 넘어 지구촌 에너지 비전을 선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글로벌에너지포럼2024는 오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광주·전남 공동(나주빛가람)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일원에서 열린다.

나주·조대봉 기자

나주사랑 커뮤니티, 금남동에 백미 40포 기탁

독거노인·경로당에 전달 예정

나주시 금남동(동장 박춘희)은 지난 24일 나주사랑 커뮤니티(대표 박석봉)가 90만원 상당의 백미 40포를 기탁했다고 밝혔다.(사진)

나주사랑 커뮤니티는 11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예수재림교 나주교회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 단체로 꾸준한 자원봉사 활동과 이웃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

박석봉 대표는 “금남동에 거주하는 약 800여 명의 독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회원들과 함께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문화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박춘희 금남동장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전해주시는 박석봉 대표님을 비롯한 나주사랑 커뮤니티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봉사단체들과 협력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탁받은 백미는 독거노인 17가구와 23개의 경로당에 전달될 예정이다.

나주·김용의 기자

나주 천연염색, 강남서 전시회 열어

코엑스 동문 로비서 진행

나주시가 패션의 성지 서울 강남구에서 개최하는 ‘2024 강남페스티벌’에서 천연염색 대중화를 꾀한다.

나주시에 따르면 29일까지 코엑스 및 압구정로데오 등에서 열리는 ‘2024 강남페스티벌’(강남패션페스타)에 참가해 나주 천연염색 패션 전시 및 판매·체험장을 운영한다.

이번 천연염색 패션 전시는 지난해 10월 24일 나주시와 강남구의 자매결연 협약이 배경이 됐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협약당시 강남패션

페스타 개최 시 나주의 천연염색 패션 전시·체험 행사를 조성명 강남구청장에게 제안한 바 있다.

천연염색 패션 전시 ‘풀·햇볕·바람, 색(색)을 입다, 영산강에 흐르는 나주의 쪽 이야기’를 주제로 코엑스 동문 로비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정관채 국가무형유산 염색장을 비롯해 천연염색 작가 30여명의 다양한 기법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쪽 염색 작품, 패션 디자인 40여점과 나주의 또 다른 국가무형유산인 김춘식 소반 등을 선보인다.

전시와 더불어 나주에서 활동하는 천연염색작가 17인의 작품(일상용품·인테리어

어소품 등) 판매와 천연염색 달항아리 열쇠고리, 가을들녘 색 손수건 물들이기, 머리핀·팔찌 만들기 체험도 운영한다.

나주 천연염색은 강남페스티벌이 추구하는 ‘ESG’, ‘친환경’의 가치와 부합한다.

나주시는 친환경적 가치를 보유한 전통 쪽염색 기능을 보존, 전승하고자 한국천연염색박물관, 출연기관인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천연염색전통과 국가무형유산 제115호 염색장 전수관 등을 운영·지원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강남페스티벌 참가를 통해 천연염색 패션의 미적 아름다움뿐 아니라 탄소감축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친환경적 가치를 적극 알려 천연염색 대중화와 저변 확대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 기자